



효행가족상을 받는 일본인 며느리

2007. 11. 15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온 일본인 며느리가 효행가족상을 받는다. 주인공은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사는 **마츠나카 가즈코(45.여)씨**.

마츠나카 씨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제19회 아산상 효행가족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0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받는다.

마츠나카 씨는 1992년 농사일을 하는 안정순(45)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

결혼 당시 시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데 가장 큰 장벽인 '언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의 벽을 메모장 삼아 한글을 익혔다. 그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이듬해에는 귀화까지 했다.

2001년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다친 허리가 악화한 데다 신경쇠약까지 걸려 거동할 수 없게 됐고, 시아버지마저

당뇨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 남편마저 뇌종양으로 쓰러져 2남1녀의 자녀 양육은 물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됐지만 마츠나카씨는 싫은 내색이나 불평 한마디 없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받은 남편은 다행히 호전돼 건강을 되찾았다.

2년 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지만 마츠나카 씨의 효심은 한결같다. 매년 봄이 되면 시어머니 방은 들꽃 향기로 가득하다. 바깥 외출이 불가능한 시어머니를 위한 마츠나카 씨의 꽃꽂이 때문이다.

시어머니 송순혜(78)씨는 이런 며느리를 "친구이자 딸"이라고 주저함이 없이 말한다.

마츠나카 씨는 5년째 부녀회장을 맡는 등 마을 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을의 굵은일에 앞장서고 겨울에는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점심을 대접하는 등 모범을 보여 '친절한 부녀회장'으로 통한다.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마츠나카 씨는 "그저 한 가정의 며느리와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